

광주 '청년백수' 가장 많다

청년실업률 11.2%...서울의 2배 육박
비경제활동인구 19만명 전체의 60%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광주 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이 서울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지역 산업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잦은 취업 실패로 인해 취업 의욕을 접거나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젊은층의 취업 포기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고령층)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4분기 현재 광주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광주 청년층 실업률은 전국 평균(7.3%)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서울(6.5%)에 비해선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어서 광주지역 젊은이들의 취업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부산·대구·인천 등 6대 광역시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8.4%로 청년층 실업이 광주보다는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청년층 실업률이 5.4%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인천(8.2%) ▲부산(8.4%) ▲대구(8.5%) ▲대전(8.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준비는 물론, 휴학이나 입대, 취업 포기 등 비경

시·도별 청년실업률 (단위:%)	광주
전국	7.3
서울	6.5
부산	8.4
대구	8.5
인천	8.2
광주	11.2
대전	8.9
울산	5.4

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치를 크게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는 현재 청년층 인구가(31만9천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60%(19만명)를 차지할 만큼 청년층 실업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청년층 가운데 상당수가 졸업 후 취업준비에 매달리거나 높은 취업 '문턱'으로 인해 아예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광주지방노동청 조사결과 현재 광주에서는 지난해 대학 졸업생 중 미취업자의 절반 가까이 43%가

공무원 등 국가고시를 매달릴 만큼 일반 산업현장 취업의 길이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지역 전체 실업률(4.1%)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날 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정부나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노력과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젊은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일할 의사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취업준비생을 비롯, 육아·가사종사자, 구직 포기자 등이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엔날레 종신이사제 폐지

비대위, 이사회 조속 정상화 합의... 이사 수도 축소

광주비엔날레 재단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19일 긴급 회동을 갖고 재단 이사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종신 이사제"를 폐지하고 ▲27명인 이사 수를 20명 선으로 줄이며 ▲미술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키로 하는 등 재단이사회의 개혁원칙에 합의했다.

박광태 비엔날레재단 명예이사장 주재로 이날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 모인 비상 대책위는 신정아 가짜박사 학위사건으로 비롯된 이번 파문을 계기로 그동안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또 이사장·이사 종신제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재단 정상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외부 인사 10여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 20명 안팎으로 새 이사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기존 27명이었던 이사회가 수가 너무 많은 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는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인 미술계 인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밖에 사퇴한 이사회도 일부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새 이사회는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장 권위시 직무대행을 맡는 임우진 삼일부이사장(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신임 이사장 선임, 오쿠이 엔위저 단독 감독체제에 따른 내국인 조감독 선출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대책위에 참여한 당연직 이사들은 박광태 광주시장, 임우진 광주시행정부시장, 강박원 시의회위원장, 조호권 시의회행정지원위원장, 최규철 광주에총회장, 정광주 광주미협회장,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신정아 전 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 선임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나, 재단 정관에 따라 사퇴가 불가능한 인사들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 농산물 드세요”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 직원들과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본부장 김천국) 회원들이 19일 광주시 동구 총창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쌀빵과 방울토마토를 나눠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우당학원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아니다” “없다” 변명청문회

한나라, 정당 사상 첫 검증청문회...육영재단·도곡동 땅 의혹 해명 일관

한나라당은 1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대선 예비후보 검증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의혹을 집중 검증했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강민 검증위원장 등 15명의 검증위원이 질의자로 나서 두 후보와 관련된 제보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가 의혹에 대한 검증보다 두 후보의 해명에 치우쳐 실제적인 청문회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4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청문회에서는 강훈 검증위원이 '전환한 전 대통령으로부터 9억원을 지원받아 김재규 수사비 명목으로 3억원을 돌려줬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10·26

사태 직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 됐던 최태민 목사와 관계에 대해 박 후보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밀접한 관계가 아니며 최 목사의 비리 의혹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명근 검증위원이 '최 목사가 아직도 결백하고 모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천룡을 끄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애가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데리고 와도 좋다. DNA 검사도 해주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5·16에 대해서 "구국혁

명이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유신체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도곡동 땅 등의 차명 재산 의혹, 읍서널벤처스(BBK 후신) 주가조작 사건 연루설, 병역면제 등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은 이명박 전 시장은 기존의 논리를 반복하면서 "의혹은 없다"고 대응했다.

그는 육영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지금도 팔리지 않는 현산을 제가 투기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22년 전 일을 다 아귀가 맞게(자료들)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큰 형은 소가 300마리 넘는 농장과 전기설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일했으니 어디서 돈을 만들어 샀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개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시장을 할 때는 서울시 및 기업의 경험을 갖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결심이 컸을 때 편히 친·인적으로 알려진 회사에 정보를 줘서 일을 하게 할 정도로 어려서적 않다"고 반박했다.

병역 면제와 관련, 이 전 시장은 "대학 입학 후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2년간 일하고 나서 산산훈원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퇴출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범여권은 19일 이날 검증청문회에 대해 "면피용 대국민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ILDONG 위동제약

항산화제 보강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드러위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과할 활성산소(활성산소)는 피로와 피부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 피부로 흡수되는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D·토코페놀은 미연동 항산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비타민E와 비타민D가 함유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노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피부에 흡수되는 비타민D와 토코페놀은 미연동 항산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E, 비타민D, 토코페놀 함유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노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피부에 흡수되는 비타민D와 토코페놀은 미연동 항산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피부가 좋아야
일하러, 살려라! 열매나 피로하겠어요